

멕시코전 '손+오' 동반 카드 만지작

홍명보호, 19일 오전 10시 사실상 '조 1위' 결정전
오현규 스트라이커·손흥민 왼쪽 공격수 배치 가능
지난해 9월 멕시코와 평가전에선 나란히 골 기록

홍명보호가 '조 1위 결정전'이 될 멕시코전에서 손흥민(LAFC)과 오현규(베식타시)의 동반 선발 출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시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 경기 간 1주일의 충분한 준비 시간이 확보됐다.

홍명보호는 지난 12일 체코와 1차전에서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뒀다. 체코전 선발 명단에 오른 정예가 큰 변화 없이 멕시코전에도 선발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격진은 홍 감독이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체코전 후반 교체 투입돼 역전골을 터뜨린 스트라이커 오현규를 이번엔 선발 출격시키고 손흥민을 왼쪽 공격수로 배치하는 것이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왔으나 원래 포지션은 왼쪽 공격수다. 대표팀에는 그 외에도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풍부한 2선 공격수들이 포진해 있어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올리는, 이른바 '손툼' 전술이 자주 가동됐고, 체코전에서도 그랬다.

그런데 오현규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했다. 오현규가 확실하게 '월드컵 경쟁력'까지 증명해낸 만큼 홍 감독으로서는 손흥민과 오현규의 '공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손흥민은 체코전에서 득점하지는 못했지만, 상대 수비진을 끌고

다니며 후배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잘 수행했다.

홍 감독은 체코전 뒤 "준비한 것을 손흥민이 충분히 잘 실행해줬다"면서 "손흥민의 득점 감각은 좋다. 앞으로도 격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만들어 준 공간을 오현규가 제대로 공략해낸다면 한국이 멕시코까지 잡아내고 사상 첫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둘 가능성은 커진다.

직접 골까지 터뜨린다면, 더할

나위 없다. 지금까지 월드컵 무대에서 3골을 넣은 손흥민이 이번에 득점한다면 한국 축구사가 다시 쓰인다. 안정환, 박지성(이상 3골)을 넘어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선다.

게다가 손흥민과 오현규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치른 멕시코와 평가전(2-2 무승부)에서 나란히 골맛을 보기도 했다.

당시 오현규가 선발 출전했고,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됐다.



지난 12일 열린 체코와의 1차전에서 슛을 하고 있는 손흥민(왼쪽)과 역전골을 터뜨린뒤 환호하고 있는 오현규.



연합뉴스

"최선 다해 도전했기에 아쉬움 없어" 'AG 한국 최다 타이 금 6개' 펜싱 구분길 국대 은퇴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6개)을 보유한 펜싱 남자 사브르의 베테랑 구분길(37·부산광역시청)이 태극마크를 내려놨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국가대표에서 물러났다가 한국 선수 최다 '단독 1위'가 될 수 있는 7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꿈꾸며 복귀했던 그의 도전도 막을 내렸다.

구분길은 17일 연합뉴스를 통해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SK텔레콤 그랑프리 대회이후 행정 절차를 마치고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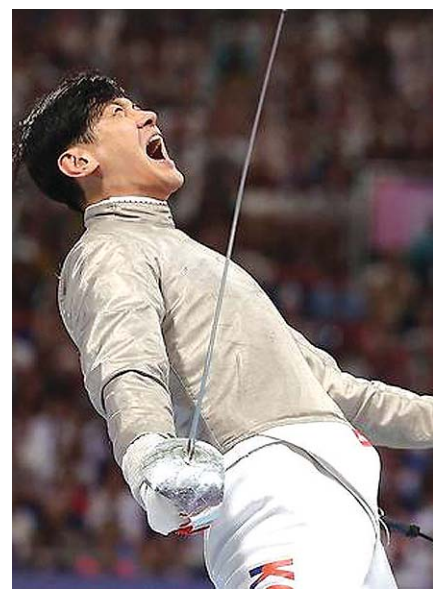
이로써 그는 이후 열린 국제펜싱 연맹(FIE) 월드컵에 나서지 않았고, 19일부터 인도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선수권대회 등에도 출전하지 않은 채 그대로 18년의 국가대표 생활을 마무리했다.

2008년부터 성인 국가대표로 활약한 구분길은 줄곧 대표팀의 주축으로 맹활약해온 선수다.

개인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적도 있는 그는 2012년 런던, 2021년 도쿄, 그리고 파리 올림픽까지 한국이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를 달성하는 동안 유일하게 대표팀을 쫓지 않은 정도로 꾸준한 기량을 발휘했다.

종목 로테이션으로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빠졌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개인전까지 4회 연속 올림픽에 참가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선 2010년 광저우와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개인전 3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준결승에서 프랑스 세바스티앵 파트리스를 상대로 득점한 뒤 환호하고 있는 구분길. 연합뉴스

패를 일궜고, 2023년 열린 항저우 대회 댄 후배 오상욱(대전광역시청)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인천·자카르타·항저우)을 포함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6개로, 한국 선수 최다 공동 1위에 오른 '살아있는 전설'이다.

구분길은 "아시안게임 도전 자체가 힘들 거라는 것을 알고 선택했는데, 이번 시즌 국제대회를 뛰면서 매년 한계를 실감했다. 펜싱의 흐름과 판도가 많이 바뀌었고, 피지컬 등에서 젊고 새로운 펜싱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7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전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계속 마음의 불편함이 남았을 텐데, 이미 도전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결과에 승복하며,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축구의 신' 메시, 월드컵 첫 '해트트릭' 아르헨티나, 북중미 월드컵 1차전 알제리 3-0 제압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A매치 통산 200번째 경기에서 월드컵 개인 첫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세계랭킹 1위)에 첫 승을 안겼다.

아르헨티나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J조 1차전에서 알제리(28위)를 3-0으로 이겼다.

이날 경기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200번째 경기에 나선 메시의 원맨쇼였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36년 만의 우승을 이끈 주장 메시는 이날 대기록을 줄줄이 작성했다.

알제리전에 출전하면서 사상 처음 여섯 차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메시는 월드컵 개인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현재시간 기준 메시가 2006년 독일 월드컵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전에서 월드컵 데뷔골을 넣은 지 꼭 20년이 되는 날에 나온 해트트릭이었다.

후반 31분 세 번째 골까지 터뜨린 메시는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도 새로 썼다.

종전 기록 보유자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스페인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당시 33세·포르투갈)였다.

메시는 또 월드컵 통산 득점을 16골로 늘려 클로제(독일)가 보유한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프로축구 K리그, 원정 응원석 확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6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원정응원석 운영 개선 >선수위원장 선임 >경기장 인종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먼저 원정응원석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배정하거나 원정 응원석의 밀집도, 관전시야 등을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각 구단은 한쪽 골대 뒤 관중석 전체를 원정 응원석으로 지정해야 한다.

원정 응원석을 일부만 지정하면 나머지 좌석을 중립 응원석으로 운영해야 한다. 중립 응원석은 홈과 원정 팬이 모두 입장할 수 있는 구역이다. 중립 응원석에선 대형 깃발, 북, 악기, 걸개 등 응원 도구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당 축 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도·이호·도동동



송창권 (지신공파 25세)

남원읍



송영훈 (정가공파 32세)

일도2동



박호형 (지신공파 24세 송이랑의 사위)

구좌읍·우도면



강동우 (정가공파 31세 송문필의 사위)

여산송씨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회장 송성군 외 종친일동

- | | | | | | | | | | | | |
|------|----------|-----|------|----------|-----|------|----------|-----|-------|----------|-----|
| 고문 | (원운 판서공) | 송태호 | 자문위원 | (정가 신랑공) | 송창구 | 명예회장 | (정가 신랑공) | 송현부 | 부회장 | (정가 우홍공) | 송석호 |
| 고문 | (지신 남공) | 송상순 | 자문위원 | (원운 수사공) | 송송형 | 부회장 | (원운 수사공) | 송영환 | 부회장 | (정가 신랑공) | 송수언 |
| 고문 | (원운 판서공) | 송승문 | 자문위원 | (지신 이준공) | 송송상 | 부회장 | (원운 판서공) | 송송문 | 관감 | (정가 신랑공) | 송재근 |
| 고문 | (정가 신랑공) | 송재호 | 자문위원 | (정가 우홍공) | 송송성 | 부회장 | (지신 남공) | 송송재 | 근감 | (지신 남공) | 송두영 |
| 자문위원 | (지신 남공) | 송기임 | 자문위원 | | 송송성 | 부회장 | (지신 이준공) | 송송상 | 현사무처장 | (원운 수사공) | 송상준 |